



미국 11월 실업률, 4년 만에 최저치 기록

김세중 선임연구원

■ 12월 7일 미 노동부는 11월 실업률이 전월대비 0.2%p 하락한 7.7%를 나타내면서 200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함.

-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도 초대형 태풍 샌디(Sandy)의 영향으로 대폭 감소하였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월 13만 8천 명보다 8천 명 증가한 14만 6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- 태풍 샌디(Sandy)의 영향은 12월 신규고용 데이터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.
- 부문별로는 소매판매 신규 고용이 5만 3,000명 증가하고 전문 서비스업이 4만 3,000명 증가한 반면 건설부문은 2만 명이 감소하고 제조업 고용은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냄.

■ 전문가들은 최근 실업률 하락이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취업 포기자 증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본격적인 개선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함.

-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월대비 0.2%p 하락한 63.6%로 나타나면서 30년 내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35만 명이 노동시장을 떠나면서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2만 2,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을 의미함.
- Euro pacific capital의 Peter Schiff는 정부가 노동시장 규모를 통해 간신히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고 비판하고 실업률 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함.
 - 노동부는 9월과 10월의 신규 고용을 각각 17만 1,000명, 14만 8,000명에서 13만 8,000명, 13만 2,000명으로 하향조정하였음.
- Huffington post는 경기침체가 발생한지 5년이 경과하였지만 침체기간 동안 일자리를 잃은 8백만 명 중 절반 정도만이 일자리를 다시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신규 고용 수준이 지속된다면 침체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데 앞으로 2~3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함.

(CNBC 등, 12/7)